

옛부터 사찰에서는 볍은 김장김치가 바다를 드러내고, 입맛도 없는 이맘 때쯤이면 어린 썩을 뜯어다 얹게 선 배와 양념장에 무친 속 곁집이로 입맛을 돋우었다. 봄날 따뜻한 신년덕이나 강득 잔디밭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볍은 비트와 무가 짝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그런 까닭에 쉽게 나른해지고 입맛을 잃기 쉬운 봄철이면 사찰 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볍국, 볍개떡, 볍칼국수, 볍사무떡 등을 즐겨먹었다.

봄을 맞아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도 녹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활발해진다. 따라서 모든 영양소의 균형있는 공급이 필요한데, 영양소의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또 최근 광우병, 구제역 소동으로 육식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자연식을 제공하는 채식 전문 식당과 사찰음식전문점이 인기를 더하고 있다. 출판가에도 이미 사찰음식이 중요한 테마로 부상했다. 97년 김연식씨가 펴낸 <한국사

봄식탁 사찰음식 "입맛 당기네"

EBS·SBS 채식요리 프로 준비

찰음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선재스님의 <사찰음식> 정제채식의 <산사 에 가면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적르스님의 <전통사찰음식> 등이 잇따라 발간돼 사찰음식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했다.

이같은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봄을 맞아 EBS와 SBS-TV에서 사찰음식, 채식의 힘 등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가정의 식탁 위에 초록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채식의 기원이자, 수행의 한 방편인 사찰음식의 유래와 조리법을 집중 조명한다.

26일~30일까지 방송되는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사찰음식(오전 9시 30분~10시)'은 사찰음식에 담긴 세 가지 맛에 초점을 맞추었다. 재료 자체가 주는 '음식의 맛',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기쁨의 맛',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기의 맛'이 불교에서 말하는 음식의 세 가지 맛. 이 프로그램에는 사찰음식 전문가인 선재스님(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이 직접 출연해 볍과 고추, 머위, 곤드레, 원주리 등 봄나물의 약효와 이를 이용한 요리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SBS-TV 생방송 모닝와이드의 세미타큐멘터리 '채식의 힘-채식의 원



◀EBS-TV '최고의 요리비결'에서 봄나물을 이용한 사찰음식 조리법을 설명하는 선재스님

조 사찰음식(오전 7시50분~오전 8시)'은 채식 위주인 사찰음식에 숨겨져 있는 맛과 영양, 삶의 지혜를 조명한다. 3월말 방송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사찰 식단의 주 메뉴인 죽, 나물, 김치 등을 통해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수행하는 스님들의 건강 비결을 밝혀낸다.

'채식의 원조 사찰음식'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윤동희 PD는 '사찰음식

은 천연 재료와 조미료를 절제한 조리법, 소식 위주의 식단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지혜로운 우리고유의 음식문화'라면서 '사찰음식'이 앞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아주고,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21세기형 생활식단임을 프로그램에서 보여 주겠다'고 기획의도를 밝혔다.

이은자·김주일기자 (ejee@buddhapia.com)



김흥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인간이 종교적 체험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예술적 체험을 할 때는? 그것을 알려면 사람을 느낄 때를 상상해 보면 된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영적이거나 예술적인 체험과 사랑은 그 뿌리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침선이나 기도에 열중하여 깊은 삼매에 들면, 시간은 고무줄처럼 한없이 늘어지고 공간은 허공처럼 안팎이 텅 비고 만다. 예술적 체험을 할 때, 무언가 응축된 에너지가 나를 통해 분출하는 것 같은 열정에 사로잡힌다. 문득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순간적인 도약과 함께 파안의 세계가 눈앞에 열리기도 한다.

인간은 시공간 내의 존재다. 세계(世界)는 시간(時) 더하기 공간(空)이다. 우주(宇宙)도 마찬가지다. time + space가 world라는 말이다. 인간은 온갖 사물을 시공간 속에서 접촉할 수밖에 없기에, 모든 체험은 시공간체험으로 환원된다. 그런데 일상의 경험은 시간과 공간이 따로 느껴지지만, 존재를 체험할 때는 시간과 공간이 급해진다. 그것을 4차원이라 한다. 그 세계는, 수십억년 동안 진행해온 진화과정의 짧은 시간 내에 그대로 재현되는 어머니의 태 속과 같다. 난자와 정자라는 단세포가 만나 열 달이

내에 복잡하기 그지 없는 고등동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4차원적 경험이란, 작은 시공간 속에서 무한을 맛보는 것을 말한다.

영국의 초기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William Blake, 1757~1827)는 시집 <천국과 지옥의 결혼>에서 시공간이 과학에 의해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으로 나뉘면서 파악되는 근대물질문명의 폐해를 날카롭게 예언하였다. 그의 시 '순수의 전조'의 첫 연은 4차원적 체험을 통해 파악한 우주의 본질에 대해 매우 아름답다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한 알의 모래알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너의 손바닥 안에 무한(無限)이 있고 한 순간 속에 영원(永遠)이 있다.

블레이크에서 이런 시공간 체험을 가장 잘 해설해 놓은 것은 <화엄경>이다. 그말 수밖에 없는 것이, 화엄경의 주제는 바로 불타의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정각(正覺)이아말로 한없이 작은 한 인간이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 우주 공간과 시간을 꿰뚫어 본 증거이다. 자신 속에 우주 전체를 담아본 그 체험의 한 복판에 연기법(緣起法)이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 무한한 시간 동안 지어 온 업의 결과이며, 지금 내가 짓는 인연의 결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래에 그대로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숨쉬고 있는 이 현재의 찰나 속에 과거와 미래의 무한한 시간이 들어와 있지 않은가? 내가 선이 지리는 무한한 우주 공간과 그대로 맞물려 있지 않은가?

이 경지를 화엄경에선 월인천강(月印千江)으로 비유하고 있다. '동산 위에 달이 뜨니 강마다 달도장'이 찍힌다는 것이다. 스케일이 더 커져 바다 전체에 달도장이 찍히는 것을 해인(海印)이라 한다.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황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내가 그 달이 되는 것이다. 그때 때, 천하에 나 아닌 것이 있겠는가? **불문학평론가**

문화부, 한국문화상징 사진공모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책자에 수록할 '한국문화상징 C.I.(Corporate Identity) 베스트 10' 사진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
한국문화상징 사진 공모는 올해 한국 방문의 해외 내선 월드컵 축구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홍보를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소재는 한복, 한글, 불국사, 석굴암, 태권도, 김치, 불고기, 고려인삼, 설악산, 종묘제례악, 달동네, 세계적 한국 예술인과 관련한 것이면 되고, 문화부 문화교류과로 제출하면 된다. ☎23704-9540.

가족 음악극으로 만나는 '서유기'



23·24일 예술의 전당
한·중·일 합작 공연

한국·중국·일본 3개국 극단이 공동으로 중국 고전 '서유기'를 극화한 가족 음악극이 오는 23-24일 예술의 전당 오 페라극장에서 공연된다.
지난 1월 일본 도쿄(東京)를 시작으로 홍콩, 중국, 싱가포르 등 순회공연에 나선 이 작품은 극단 <즐거운 사람들>과 일본

극단 <가게보우사>, 중국 <베이징(北京) 시 아예예술극단>, 홍콩 <중영극단>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획 제작했다.

이 작품은 '서유기' 가운데 삼장법사 일행이 폭 800리의 동천하에 사는 영감 대왕과 대결을 벌이는 '동천하(洞天河) 대목을 극복한 것으로 3개국 배우들이 각자 모국어로 극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대사보다는 몸짓이나 행동 등 신체언어와 음악을 사용한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우야마 히로시가 주연출이지만, 이번 한국 공연에는 '여보'의 김장래씨가 함께 연출한다. 손오공과 삼장법사 역에 일본의 사토 준과 고비야마 요이치가 각각 출연한다. ☎2745-5127

김기철 여덟번째 개인전 '윤회'

14~20일 공평아트센터
독특한 신작 41점 전시

윤회와 고리를 주제로 작품세계를 펼쳐 온 화가 김기철씨가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한지를 소재로 한 독특한 기법의 그림을 선보이는 김씨는 흡사 고흥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총 41점의 신작을 선보이고 있다. 한지 위에 적청롱, 혹은 흑백을 추가한

오방색을 겹겹이 칠한 뒤 약품으로 정성들여 뒤어내고 때로 칼로 한지를 오려 한결 벗겨내 바탕화면을 만든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한 바탕화면에 펼쳐내는 그의 그림은 미리 그려놓은 칼자국을 따라 먹이 스미고 번지는 효과를 적절히 이용해, 시각적 효과를 연출해 낸다.

이번 전시에는 지난 2년간 김화백이 구도 하듯 제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작품의 크기 또한 360호 대작을 비롯해 대부분 100호가 넘는다. 여인의 나신과 새, 꽃, 물고기, 달 등의 형상으로 얹히고 설친 인연의 신묘함을 작품마다 그려내고 있다. 특히 한지를 바



◀김기철 작 '고리'. 방으로 아크릴과 채색을 이용한 '고리' 연작이 넓은 전시장을 장식하게 된다. 김씨는 서유전에 이어 23일~29일에는 부산 롯데호텔에서도 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미수타

반도체 안전 전구 반도체 전자 인등

그옛날 미수타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성으로 제품생산 및 시공합니다.

◎ **제품특징**

- 기존 전기적인 방법을 전자화 시켰습니다. 법당 천정에 220볼트가 아닌 저전압 5볼트로 공급됩니다. (발열이 없으므로 화재예방)
- 0.4w 절전형 (기존 10w의 25분의1 전력 소모)
- 설치후 전구를 교환하는 번거로움이 없음.
- 본 제품의 가벼움과 완벽한 결선으로 법당 내부에 늘어지는 현상이 없음.
- 인등은 수량에 관계없이 밝기가 일정 합니다. (기존 인등의 10분의1 전력 소모)
- 인등은 내부전압 변환 트랜스에 전혀 발열이 없음.
- 주문시 법당 일년등용 전구설치는 법당 규모와 등의 규격에 따라 전구의 간격이 달라지므로 전화 주시면 일차 방문하여 간격과 수량을 맞추어 드립니다. (설치예정일 2~3주전에 전화주십시오.)
전화 : (031) 791-8871

◆ 지역대리점에 뜻이 있는 분은 전화 주십시오.
전북1. 전남1. 서울. 경기2

◆ 본 미수타 반도체 안전전구와 미수타 반도체 전자인등은 상표, 실용, 의장, 유사방지의 각각 법에 의하여 지적 재산권에 보호를 받는 제품입니다. (상표외에 총 11건)

부산, 경남 동부대리점
☎055-355-6707

경남, 서부대리점
☎011-599-8287

대구, 경북 남부대리점
☎054-772-2667

충남대리점
☎017-209-9042

강원, 충북대리점
원주 ☎(033) 764-9396

새천년의 발원 - 손 불국토를 정엄 하겠습니다

한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각 시·도별 연등 30일전에 미리 주문 부탁드립니다. (만월등)
- 연등의 종류별로 영가등이 있습니다.
- 연등용 전선 케이블 -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팔모주름등

(빨강) (핑크) (노랑) (연두) (보관형태 (팔모주름등))

공단등(비단등 실크등)

(빨강) (노랑) (오색) (차걸이등)

만월등

(핑크) (노랑) (오색) (만월장등)

인공임 제즈터어 (특이 제122168호) 필극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 의장등록 다수 보유임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792-6288, 794-4055 / FAX 031)794-6288
주소 : 경기도 하남시 훈공동 180-1